

뉴스 & 뉴스

**해인사 수다라전 보수 '끝'**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관전 가운데 하나인 수다라전 기와 보수가 마무리됐다.  
 3월부터 시작된 수다라전의 기와 보수는 수다라전에 덧집을 씌우고 연목 98%와 기와 정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해인사는 10일경 수다라전의 보수가 끝나는대로 법보전과 동서 사간고 해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정혜사지 석탑 도굴훼손**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국보 제40호 정혜사지 13층 석탑의 보조기단석과 옥계석 등이 도굴됨에 의해 훼손돼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도굴사실은 2일밤 탐 열을 지내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석탑 주변에 나무지렛대 등 도굴용 장비가 흩어져 있고 탐 기단부 일부가 떨어져 있었던 것. 경주시 사적공원사무소는 주민의 신고로 진상과악에 나섰다.  
 김지연 기자

**18일 민주열사 추모제**  
 민족민주 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제가 18일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천도제는 민족민주 열사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9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전야제에서 불교행사를 열라는 것으로, 민족민주열사를 애도하고 산자들의 투쟁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제 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진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천도제를 해마다 정례화하고 공식화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직지사 학인 10명 장학금**  
 직지사(주지 녹원)는 1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학인 학인 스님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혜자를 수혜가 청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스님으로 한정하고 이는 직지사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대학학 스님에게는 90만원, 강원학인 스님에게는 30만원씩을 10명에게 각각 전달했다.  
 도필선 기자

**징계 무효소송 '최종기각'**  
 황종진 스님등이 대법원에 항소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8월 26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유력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종진 스님등은 96년 4월 15일 조계종이 내린 처탈도침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의 이번 기각으로 조계종 개혁회의 이후 제기된 개혁종단의 적법성 시비는 일단락 됐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 IMF이후 사찰 새 풍속도

## 혼자 법당찾는 신도 늘고 시주금 대신 과일이나 쌀로 공양시간 홈리스족 '복적'

사찰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장기적인 IMF 경제한파와 실업자의 증가가 사찰의 신령풍속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각종 재일이나 장기 기도법회에 접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당을 찾아 기도를 하는 예가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 개인불공을

원하는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찰의 시주금 감소로 이어져 사찰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준다. 시주금 대신 과일이나 쌀 등의 공양물을 들고 절을 찾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사찰의 각종 불사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특히 대형불사를 해 온 사찰의 경우 아예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찰의 경우는 건축불사 대신 불사원만성취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불자들의 건축불공으로 사찰 운영이 어려워진데 '앞치마 달린 격'으로 건물정비들이 사찰로 몰려드는가하면 종도독자기 기능을 부리고 있어 적잖은 대응책이 시급하다. 홈리스들이 사찰을 찾아 주위를 배회하다 공양시간이 되면 후원으로 찾아 든다는 것. 심지어 주지스님 방까지 찾아와 "차비를 달라. 밥을 달라"는 등 행패까지 부리는 경

우도 있다. 불전함, 가전제품 등을 도난당하는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회날 사찰입구에 난전을 퍼는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풍양주들 사찰의 소임을 자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경제불황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기류속에서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사찰들도 변화하는 풍속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운영, 장학금 전달 등 실업자 구호사업을 실시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련회, 원터, 귀농학교와 국난극복 기원법회 등을 잇달아 열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그림: 박구원

# '대중불교' 복간 움직임

##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 '1만원 후원금 통장갯기'

월간(대중불교) 복간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전북대

교수), 김용직 전국신도단체협의회 회장, 송춘회법사 등 불교지도자 70여명은 8월 29~30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대중불교결사 제9차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1구좌(1만원) 이상 후원금통장 가입하기' 등

## 파라미타 '유해환경감시단' 발족 봉사단 1백명 모집...고발창구도 운영

지난달 18일 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권근)는 20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8월 각 부·지회·종립학교·자원봉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10일 신청자들에게 심의를 거쳐 감시단원 110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유해업소를 색출·지도할 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제작·배달하고 캠페인도 전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파라미타 중앙 사무국은 감시단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고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 이 곳에 고발된 업소 및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계도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경스님(파라미타 사무총장)은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과 정부 그리고 상업주의에 걸린 기업들 사이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인간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쳐 성숙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東大 불교아동학과 4년부 학부제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내년부터 불교아동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각각 '인간과학부'로 묶어 학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학부제 적용을 배제해 왔던 특수과 중 불교아동학과 등 4개학과에 대한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yhlee@buddhapia.com)

그러나 불교아동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불교아동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학문적 연계성이 없어 전공의 특수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혁방안은 "학부제는 교육부의 개혁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와 사립대학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며 학부제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교계 장기기증운동 '생명나눔실천회'로 업무 일원화 될듯

앞으로 불교계 장기기증 관련업무는 유일한 보 건복지부 등록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에서 관장하게 된다. 인구·심장 등 장기기증관련 업무를 대행해 오던 새생명광명회와 감로심장회, 대인회 등 여타 교계 장기기증 관련 단체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정국 의료정책과) 산하 생명윤리위원회가 장기기증 관련 업무를 두고 장기기증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을 총괄관리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보현사 훼손 사과합니다"

### 범인다녀던 교회목사 보현사에 사과편지

충주 보현사 훼손사건과 관련된 범인 오모씨가 다녔던 충주 큰빛교회 김인식 목사가 1일 보현사 주지 원봉스님에게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목사는 편지에서 "훼손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주지스님의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특히 "피의자 오모씨는 지난 4월 병원 위문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돼 자신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8월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훼손 소식을 안타깝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을 접하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주지스님의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특히 "피의자 오모씨는 지난 4월 병원 위문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돼 자신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8월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훼손 소식을 안타깝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 北 함경도서 '발해 절터' 발굴

### 청동불상·돌부처 출토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 하호리에 있는 청해토성 서남쪽 10km 지점인 금호지구 오메리에서 발해 절터가 발굴됐다고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절터는 동서 약 2백m, 남북 약 3백m 되는 곳에 4개의 건물터가 있고, 4각탑터에서는 동판 청동불상 돌부처 조각 등이 나왔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1980년부터 10여년간에 걸쳐 발굴작업이 진행됐던 청해토성은 장방형으로 둘레는 2천1백32m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재 문화관광부는 민간에서 고도보존법 제정 건의가 들어오면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정차 고도보존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경주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로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경주시의 입장 재원확보의 어려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 고도보존법의 조속한 제정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여러 여건에 밀려 고도보존법 시안이 책상 속에서 잠자는 동안 경주의 훼손은 무차별로 가속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jygang@buddhapia.com)

## 고도보존법 지지부진

지역논리 등으로 인해 고도보존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보호 보존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입법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역논리 등으로 인해 고도보존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보호 보존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입법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지연 (취재2부 기자)

경주는 11일부터 두 달 동안 열리는 세계 문화엑스포로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에밀레 종소리와 에밀레 춤을 시작으로 개막된 엑스포 기간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유적, 민속공연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도 경주의 신라문화를 다양한 행사로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세계문화엑스포 때문에 화려하게 장식되는 경주를 보는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아프다. 천년 고도 경주 자체를 경주답게 만들고 경주에 있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보존법 제정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고도보존법은 경주 부여 공주 등 역사성이 깊은 도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해 그 지역

역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사 유재산을 철해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 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고도보존법을 마련해 시행하며 고도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우선이라는 정치와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향(향비)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중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쿼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비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써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켜줍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응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무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야말로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때 뒷맛이 짝이 쓴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밤마다 잠이 잘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팔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종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 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착용후에는 팔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된 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